

안철수, 대화 하고픈 지식인 1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싶은 국내 지식인으로 안철수 교수가 뽑혔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호점 개점 1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 방문자 1만9천470명(남 14.2%, 여 85.8%)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싶은 국내 지식인’으로 3천857명(19.8%)이

안철수 교수를 꼽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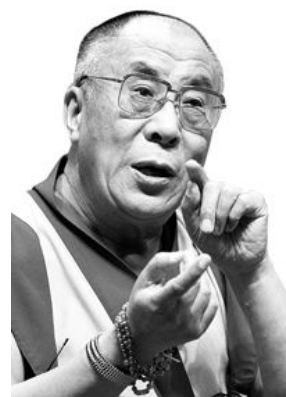
뒤를 이어 한비야(1천453명, 7.5%), 공지영(1천355명, 7%), 이외수(1천35명, 5.3%), 손석희(660명, 3.4%)씨 등이 꼽혔다.

또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응답자 중 53.6%가 ‘커피 자체를 즐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24%), ‘타인과의 만남 및 대화를 위해서’(22.4%)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다수인 72%의 응답자가 커피를 하루 평균 1~2잔 마신다고 답했으며, 3~4잔(24.5%)이나 5잔 이상(3.5%)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하루 중 맨 처음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로는 ‘아침 식사 후’(31.3%)와 ‘오후 중’(31.2%)이 대부분이었고, ‘아침 식사 전’(19.2%)도 많았다. /연합뉴스

달라이라마, 美 국제 자유상 수상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미국 인권 박물관이 수여하는 국제 자유상 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벤자민 L.룩스 박물관장은 이날 달라이 라마를 마틴 루터 킹과 간디가 남긴 비폭력저항 정신의 살아 있는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국제 자유상 수여식은 9월23일 뎀피스에서 열린 예정이다.

또 국가 자유상은 살해당한 인권운동가 메드가 에버스의 미망인 밀라이 에버스 윌리엄스가, 유산 자유상은 전 NBA의 유명한 농구선수인 쥘리어스 어빙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10월27일 수여된다. /연합뉴스

‘나홀로 집에’ 제작자 존 휴스 별세



1980년대 미국 청춘영화의 명감독이자 크리스마스의 단골영화 ‘나홀로 집에(Home Alone)’의 제작과 각본을 맡았던 존 휴스가 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휴스의 대변인은 그가 친구를 만나러 뉴욕을 방문했다가 아침 산책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카피라이터 출신인 그는 1983년 ‘휴가 대소동’(National Lampoon’s Vacation, 1983)의 각본을 쓰면서 이름을 얻었고 이듬해 ‘아직은 사랑을 몰라요’(Sixteen Candles, 1984)에서 성공적인 감독 데뷔를 했다. 이후 ‘조찬클럽(The Breakfast Club, 1985)’과 ‘페리스의 해방’(Ferris Bueller’s Day Off, 1986) 등을 연출하며 흥분을 쳤고 그의 영화에 등장한 롤리 랩월드, 알리 슈더, 앤소니 마이클 홀 등은 청춘스타로 이름을 굳혔다. /연합뉴스

“80년 전통의 남도 술떡
이젠 세계 시장으로 갑니다”

3대째 손맛 잇고 있는 ‘화순 사평 기정떡’ 구정숙 씨

“카스텔라처럼 부드러운 빵에 가장 가까운 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어요. 쌀이 원료여서 소화는 물론 살로 별로 안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화순군 남면 사평에서 전통식품 기정떡을 만들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구정숙(여·51·(주)사평기정떡) 대표는 요즘 하루에 1.4t(20kg짜리 70포대)의 쌀을 땀을 흘려 만들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700곳에 택배로 배달을 나간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사평기정떡은 미국·호주·필리핀은 물론 캐나다·중국 등 5개 국가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판매제약가 들어오는 등 세계각지로 뻗어나갈 예정이다.

구 대표는 “현지 마트에 직접 가보니 외국인들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간장에도 좋은 만큼 서양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정떡은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반죽한 뒤 대추, 견포도 등의 고명을 얹어 찐 우리의 전통 먹거리다. 각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며 흔히 ‘증편’이나 ‘술떡’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사평기정떡집은 구정숙 대표의 외할머니 때부터 3대에 걸친 모계 전승방식으로 그 손맛을 이어오며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 80년전 증손 집안에서 기정떡을 만들었던 구 대표의 외할머니의

맛은 지난 1982년부터 사평기정떡집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향토음식부문’에서 지난 200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물론 ‘남도음식문화축제’에서도 수상했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4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수산부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농촌진흥청장상까지 받았다. 맛은 물론 품질까지도 인정받은 셈이다.

“향토 음식인 기정떡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에 딱이 빨리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떡에 누룩을 넣어 만든 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조들의 지혜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떡이라고 볼 수 있죠.”

구 대표는 기정떡의 특징인 막걸리의 신 맛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조금 줄이면서 입맛을 맞췄다. 발효의 시간과 온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바뀌지만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다른 기정떡과 맛에 차별성을 뒀다. 앞으로는 천연재료를 이용해 색을 짙어 넣거나 모양은 물론 신세대에 취향에 맞는 맛도 개발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우리 지역 고유의 맛이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떡을 개발해 전통 맛의 힘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화순군 남면 사평에서 전통식품 기정떡을 만들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구정숙 대표가 어머니와 함께 기정떡을 직접 만들고 있다. <구정숙씨 제공>

경찰청 2009 상반기 ‘베스트 수사팀’

성폭행 절도범 등 114명 검거



왼쪽부터 조승우 경장, 정당진 경장, 선정상 경위, 국승인 형사과장, 김영래 팀장, 이권석 경사, 김현철 경사.

광주북부경찰서 ‘지역형사 3팀’

“흥이 든 강도를 혼자서 맞닥뜨리면...” “들굴이 오작하죠. 참나의 순간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최근 경찰청이 주관한 2009년 상반기 ‘베스트 수사팀’(강력범죄 부문)에 선정된 광주북부경찰서 지역형사 3팀 김영래(46·경위) 팀장은 기자의 질문은 질문에 “흥미를 들었건, 아니건 간에 잡아 아할 범인은 꼭 잡는다”고 말했다. “형사도 사람”이라고도 했다.

지역형사 3팀은 올 상반기에만 강도 3건, 성폭행 5건, 절도 210건 등 370건에 1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김 팀장은 경찰 경력 17년 중 형사과에서만 15년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가을, 6년에 걸쳐 가정집과 아파트 등에서 무려 54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 사건과 같은 해 봄에 있었던 노래방 연쇄강도사건(14건) 등 광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등을 해결해 주목을 받았다.

김 팀장은 김현철 경사, 조승우 경장, 정당진 경장, 이권석 경사, 선정상 경위 등 팀원 5명을 일일이 거명한 뒤 “팀원들과 함께 광주 도심에서 발생하는 연쇄 강·절도, 성폭행범은 꼭 우리 팀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민경제 침해 끝까지 추적 검거”



왼쪽부터 진성훈 경위, 선병주 경사, 김운행 경장.

보성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

“밤낮 없이 수사에 매달린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단속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성경찰은 9일 “수사와 경제범죄수사팀이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베스트 경제범죄수사팀’(팀장 민병서)”으로 선정돼 특별승진과 포상휴가 등의 특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성서 경제범죄수사팀 5명은 올 상반기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사를 벌여 사기와 횡령 등 서민경제 침해사건 235건을 해결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주안호 수변구역에서 발생

한 국가 지원금 부정 수급사건과 관련해 230명의 주민과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또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표차량 111대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정신지체장애인을 속여 땅의 도용한 뒤 4억원 상당의 중장비를 구입해 가로챈 피의자나 독거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금 3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탁월한 기획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성서 관계자는 “이번 베스트 수사팀 선정은 팀원 5명의 혼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효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별,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

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모집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지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한 글자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방무청 현역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지역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람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품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

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호패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부음

▲몽흥ళ్씨 규암·문녕·문웅·송희·강희·은주·남원씨 부친상=발인 1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정영도씨 별세 세령·선은·지은씨 부친상=발인 1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장삼배씨 별세 내식·내자씨 부친상=발인 1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박재규씨 별세 종천·종희·연옥·연천·연희씨 부친상=발인 10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